

보도시점 2026. 5. 27.(수) 17:00 배포 2025. 5. 27.(수) 15:00

# 한국형 K-AI ODA 추진에 본격 시동

- 제1차 AI 융합 국제개발자문위원회 개최
- K-AI 패키지 추진전략, 글로벌 AI 허브 통한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논의

재정경제부는 '26.5.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AI 융합 국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및 '26~'28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에서 인공지능(AI) 등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연장선에서, 재정경제부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형 AI (K-AI) 패키지사업 추진전략안」과 「글로벌 AI 허브를 통한 AI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 제1차 AI 융합 국제개발자문위원회 개요 >

- ▶ 일시·장소 : '26.5.27일(수) 15:00~16:20, 정부서울청사
- ▶ 참석자 : (재경부) 부총리(주재), 국제경제관리관, 개발금융국장  
(민간위원) 곽재성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 고평석 대표(엑셈) 등 10명

구윤철 부총리는 AI는 공급망·문화·그린 등 다른 ODA 중점분야에 접목(AI-embedded)되어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AI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AI는 국가의 발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선진국·개도국간 AI 격차 완화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ODA에 대한 양적·질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재정경제부는 수자원, 보건, 교육,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건설되는 물적 인프라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원국의 AI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리가 먼저 K-AI 패키지 사업을 개발하여 수원국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술·부품을 널리 사용하여 우리 AI 산업의 해외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 ODA 지원을 위한 글로벌 다자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재경부는 한국에 설치 예정인 9개 국제연합(UN) 기구들의 ‘글로벌 AI 허브’와 세계은행(WB) 등 5개 다자개발은행 한국사무소간 협력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견고한 AI 다자협력 플랫폼을 마련하여 글로벌 AI 협력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AI 대전환의 혜택을 전세계와 공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도국 수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지여건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AI 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AI 협력에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프로젝트 발굴에 이르는 과정에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개발효과성 높은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 시장의 경험, 현장의 감각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번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AI 개발 협력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서영환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jychang27@korea.kr)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안영환 (ynghwn@korea.kr)
	개발금융국 개발정책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정희 (044-215-8760)
		담당자	사무관	류한솔 (feelrhs@korea.kr)